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과소비와 공포 분위기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요즘 신문을 보면 크게 2가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첫째는 과소비로 우리나라의 과소비를 워싱턴 포스트 같은 외국의 언론들까지 한국사람들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비아냥 거릴 정도이다. 이런 보도가 있고난 다음날 국내 신문들은 국회법사위 소속 일부의원들이 폭탄주를 마시고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했고, 3일후에는 쌀이 남아돌아 쌀 막걸리를 만들어 공급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9월27일 농어촌사회연구소가 주최한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심포지움에서 일본의 농업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최근 몇년간 기후가 좋아서 쌀이 증산된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특강 내용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 표시한바 있다. '80년에도 쌀 막걸리를 만들어 먹고, 다음해에는 대량 쌀도입을 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또 다시 쌀 막걸리를 만들어 먹고 다음해 캘리포니아산 쌀을 수입해 와야 한다면 워싱턴포스트지는 한국의 농림수산부는 2

번씩이나 쌀 막걸리를 너무 일찍 만들어 먹었으며, 국회의원들은 감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너무 일찍 폭탄주를 마셨고, 돈 좀있는 소비자들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기사를 쓸 것이다.

과소비에 대한 몇가지 통계를 보면 금년도 상반기 수출은 4.4%가 감소한 반면 수입은 11.4%가 증가했고, 이제 소비의 질도 호텔 부페나 갈비집은 2류식당으로 전락하고 초호화 고급식당이 증가하는데, 대개 가족단위 손님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우리 선조들의 슬기에 가끔 놀랄때가 많은데, 그중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하는 노래이다. 요즘 과소비, 향락, 관광레저산업의 주제가로 매우 적합한 노래라고 볼 수 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가 삼천리 금수강산 하는 노래는 요즘 시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노래같다. 특히 연휴가 많은 10월에는 역시 노세 노세 젊어 노세가 제격이다. 물론 재 생산을 위한 휴

식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다만 먹고 즐기고 그래도 시간과 돈을 주체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외국의 관광지를 여행하다 보면 정년퇴직후 노부부가 관광단의 중심을 이루는 것에 비해, 우리는 젊고 패기있는 관광팀이 주종인데 어느쪽이 보기에 좋은지는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워싱턴포스트가 본다면 한국인은 너무 젊은 나이에 관광을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과소비외에 또 하나는 사회불안 요인이다. 인신매매는 그 도가 지나쳐 있고, 국민학교 여학생에까지 성폭행이 자행되고 있으며, 조직폭력배는 유흥가 마약외에 건설 부동산 포장마차까지 이권이 있는 곳이면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여배우 집을 골라 강도노릇을 하는가 하면, 최근 남녀학생들이 모기관에 불려가 생매장 성고문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 등 전체 사회분위기가 공포분위기로 쌓여가고 있다. 수도물도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있어 먹을 수 없고, 공기도 오염 기준치를 넘어 마음대로 숨도 쉴 수 없다. 골프장에서 흘러들어가는 농약은 심각할 지경이고, 오래 근무한 캐디들이 기형아를 출산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이러한 불안 공포는 그래도 애교로 보아 넘길 수 있다(?) 양돈농가의 불안을 이러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불안과 공포가 아니고 직접 생존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다. 장기간 돼지 값이 생산비 이하로 유지되고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 돈콜레라 백신을 하기는 했는데 백신보관은 잘된 것을 사온 것인지 불안하다. 수의사가 돈콜레라 같다고 했는데 혹시 불고 지죄로 구속되는건 아닌지 불안하다. 3개월후면 소시지가 쏟아져 들어온다는데 어떠할 것인지? 한국사람은 깡통제품은 취미없어 괜찮다던 통조

림 수입량이 매년 배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또 한번 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종업원을 두고하는 농장은 사람구하기도 힘들다. 그러지 않아도 간이 콩알만해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공기오염 때문이 아니고 불안해서), 들리는 소리는 분노처리시설을 안했다고 양돈업자가 구속이 되었다는 소리뿐이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돼지가 들어있는데 철거하는가 하면 검찰에 고발당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집 돈사는 언제 헐러 올것인가? 손 없는 날 끌라서 오려고 기다는 것은 아닌지? 나 없을 때 철거반이 오면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놀랄까?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계는 완전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공포분위기가 조성되면 이상구씨의 말대로라면 무슨 홀몬이 분비되어 암도 생기고 일찍 죽는다는데 사후(死後)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소비는 쇠고기와 고급식품의 수입량을 폭증시키고 돼지고기 등 국내 축산업계를 병들게 한다. 병든 축산업자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최대의 스트레스를 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상태에서 양돈업을 면할수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주겠다고 한다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은 희망을 먹고사는 동물이라고 한다. 희망이 아닌 공포만을 먹고 산다면 죽음을 강요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분노처리시설비의 보조 또는 장기저리 융자, 사료를 비롯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돈콜레라·오제스키 발병 또는 양성돈에 대한 식가보상,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획·계통출하 등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축산인을 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